

기술창업 장애요인 실태조사*

김대호 (목원대학교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김 홍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원장)***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창업 장애요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기창업자 327개사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창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창업에 대한 실패원인은 기술에 대한 과신, 코스트 관리 부재, 영업·수익 확보를 위한 집중력 미흡, 무계획적인 도전, 전략판단의 미흡, CEO 부적임으로 능력부족과 사유화하는 것으로 대별될 수 있었으며, 기술창업을 위한 성공요인으로는 1) CEO의 리더쉽과 명확한 사업 컨셉, 2) 독창적인 상품·서비스의 개발, 3) 플랫(flat)한 조직과 유연한 조직 운영, 4) 외부의 경영 자원 및 네트워크의 활용, 5) 하이브리드(hybrid) 요원 구성에 의한 인재 보강 등이 파악되었다.

핵심주제어: 기술창업, 장애요인, 성공요인, 실패요인

1. 서 론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지만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 이노비즈 기업 등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으로 정의한다. 벤처기업 등의 기술창업은 IMF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이 논문은 2008년도 창업진흥원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목원대학교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mis@mokwon.ac.kr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 kimhong@hoseo.edu

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을 주도해 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중심의 창업문화를 형성하고 젊은 세대의 도전정신을 고취하여 중소기업으로 창업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은 신규고용과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신산업 출현과 기술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표 1> 창업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수준

(단위 : 천개, 천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고용 창출(A)	506	498	121	90	328	288	305
창업중소기업 고용(B)	1,439	1,789	1,460	1,238	1,230	1,247	1,400
기존기업 등 고용증감 (폐업 포함) (A-B)	△933	△1,291	△1,339	△1,148	△902	△959	△1,095

주) 고용 : 고용주, 유급종사자(정규+일용), 무급종사자 등을 포함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중 비영리업체 제외하고 작성한 자료

특히, 기술창업을 통한 선진 중소기업 확충은 고용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높은 노동집약산업 비중이 감소 및 고용창출 주도했던 대기업의 고용 흡수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대별 경제발전 기여율

기 여 율		1960년대 (63~69)	1970년대 (70~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00~05)	전 체 (63~05)
종사자수	중소기업	38.1	47.1	81.9	△6.8	106.7	77.8
	대 기업	61.9	52.9	18.1	△93.2	△6.7	22.2
생 산 액	중소기업	26.5	32.2	45.7	50.3	53.8	49.5
	대 기업	73.5	67.8	54.3	49.7	46.2	50.5
부가가치	중소기업	25.7	35.7	47.7	50.5	54.4	51.5
	대 기업	74.3	64.3	52.3	49.5	45.6	48.5

주) 1. 종사자수 5인 이상 기준이며, 증감은 기간 중 증감수치임
 2.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 재생산

또한 기술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한데, 활발한 창업활동은 경제 활력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소이며, 기술창업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창업자를 대상으

로 기술창업 장애요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1) 현 정부 최고의 정책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기술창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축된 기업가적 역량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과, 2) 과거의 실패경험으로 인한 낙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안주의 틀에 갇혀있는 기술 보유자들이 기업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잠재적 창업자들은 도전적 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정부는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및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II. 기술창업 실조사

2.1 조사 대상의 기초 통계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기창업자 327개사였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기초 통계로서 종업원수, 지역분포, 매출규모, 그리고 자본금 규모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각 표의 합계가 327이 아닌 것은 각 질문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 3> 조사대상 기업의 종업원수

구분	10명 이하	10~20명	20~30명	30~40명	40~50명	50명 초과	합계
빈도(개사)	243	45	14	3	3	6	314
비율(%)	77.4	14.3	4.5	1.0	1.0	1.9	100.0

<표 4> 조사대상의 지역분포

구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빈도(개사)	70	12	30	16	9	0	11	54	13	30	6	23	17	15	1	1	308
비율(%)	22.7	3.9	9.7	5.2	2.9	0.0	3.6	17.5	4.2	9.7	1.9	7.5	5.5	4.9	0.3	0.3	100

<표 5> 조사대상의 매출액 규모(2007년말)

구 분	빈도(개사)	비율(%)
1백만원 이하	2	0.8
1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11	4.5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7	23.4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4	50.8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45	18.4
100억원 초과	5	2.0
합계	2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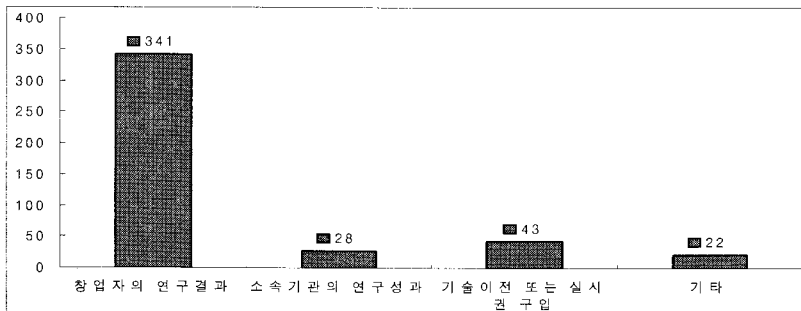
<표 6> 조사대상의 자본금 규모

구 분	빈도(개사)	비율(%)
1백만원 이하	5	1.7
1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20	6.9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53	52.6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6	36.4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6	2.1
100억원 초과	1	0.3
합계	291	100.0

III. 기술창업 애로사항

3.1 창업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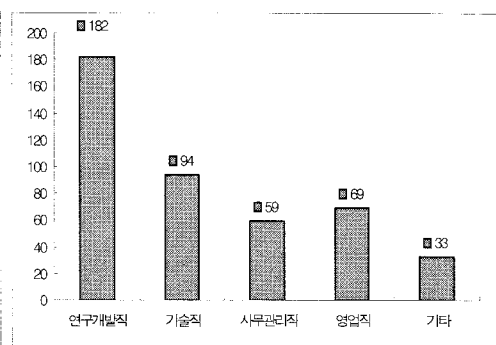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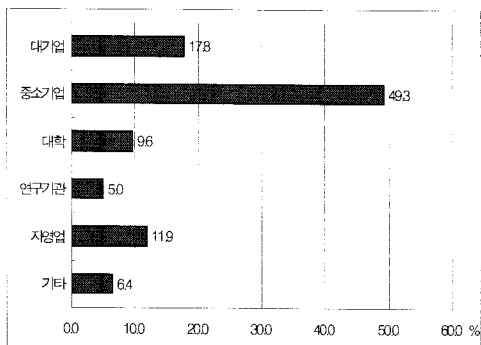
창업 시 기술의 원천은 창업자의 연구결과가 약 78.6%,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구입 9.9%, 소속기관의 연구 성과 6.5% 등으로 나타나 기창업자의 창업은 창업자의 연구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림 1> 창업자 기술의 원천

CEO의 창업 전 근무처는 중소기업이 49.3%, 대기업 17.8%, 자영업 11.9%로 나타났고, 연구기관 경험은 5.0%로 조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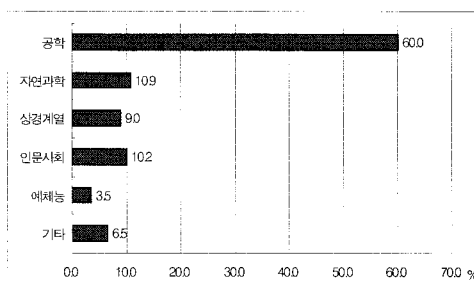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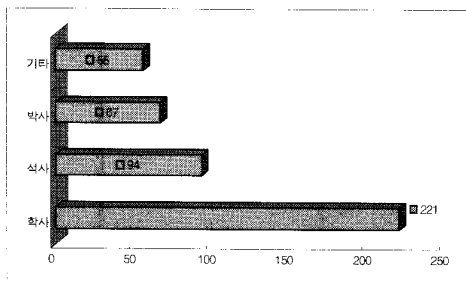
- 창업 전 근무분야는 연구개발직 41.6%, 기술직 21.5%, 영업직 15.8%, 사무 관리직 13.5%로 나타나 기업의 유형에 관련 없이 연구 및 기술 개발직이 63%이 상으로 나타났음.
- 연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하는 창업기업의 CEO는 사무관리직이 40%로 나타나 성공하는 창업기업은 CEO의 연구·기술보유도 중요하지만 관리능력도 중요하다고 판단.



<그림 2> 창업 전 근무처

<그림 3> 창업 전 근무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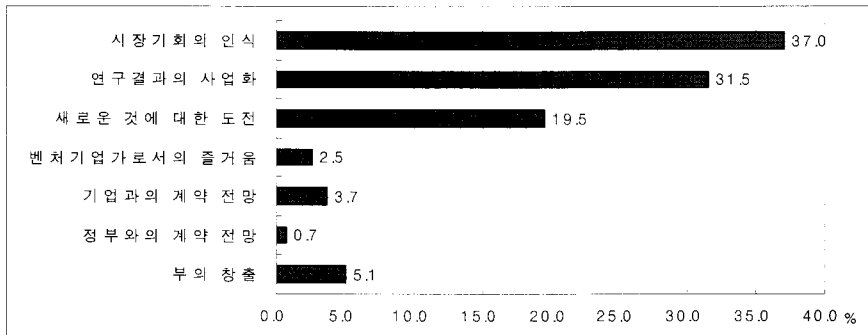
창업기업 대표의 학력은 학사 50.5%, 석사 21.5%, 박사 15.3%로 나타났고, 전공분야는 공학 60%, 자연과학 10.9%, 상경계열 8.9%, 인문사회 10%로 나타나 이공계통이 70.9% 조사되었다.



<그림 4> CEO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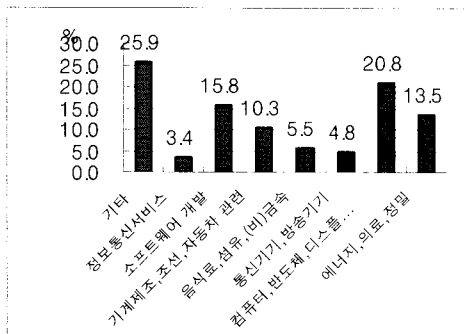
<그림 5> CEO의 전공분야

기 창업자의 창업 동기는 시장기회의 인식 37.0%, 연구결과의 사업화 31.5%,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19.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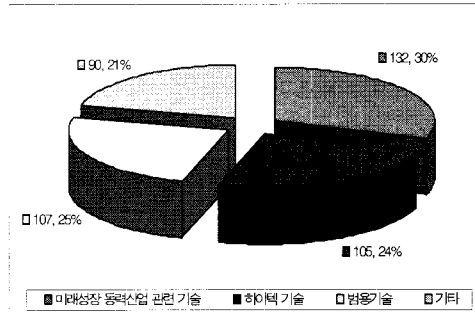


<그림 6> 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업종은 컴퓨터·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부품분야가 20.8%, 소프트웨어개발업이 15.8%, 에너지·의료·정밀산업분야가 13.5%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업종이 25.9% 나타나 창업은 다양한 분야로 일어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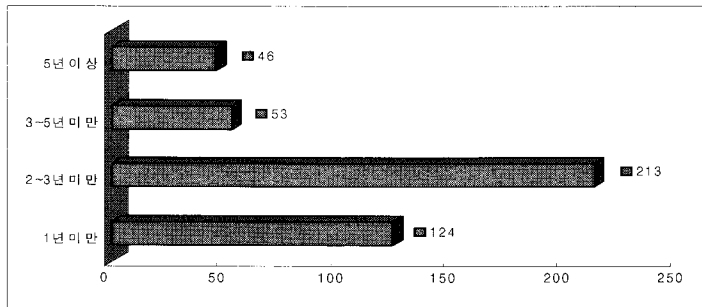


<그림 7> 창업업종



<그림 8> 주생산품의 기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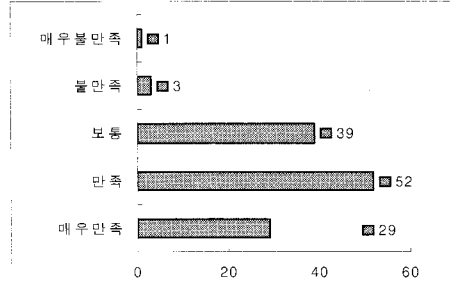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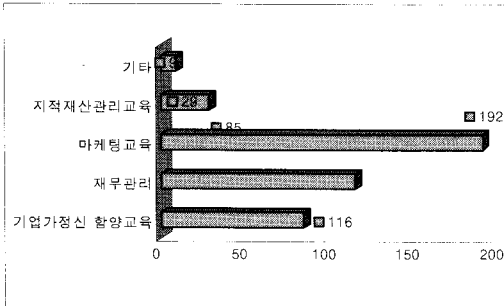
창업을 위해 준비한 기간은 2~3년 미만이 48.9%로 나타나 그리고 1년 미만 28.4% 나타났다.



<그림 9> 창업 준비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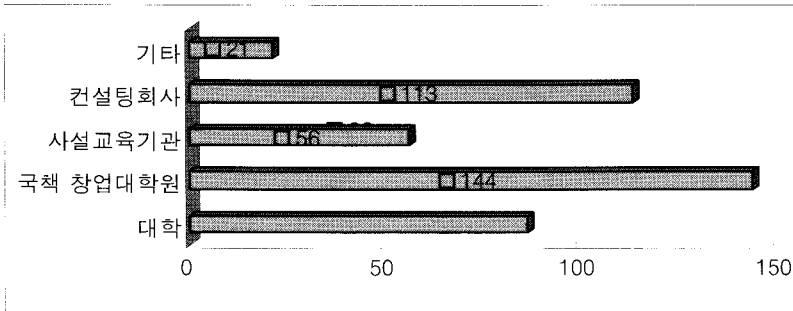
창업 시 창업교육 또는 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72%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만족수준은 약 65.3% 수준으로 창업의 성공과 매우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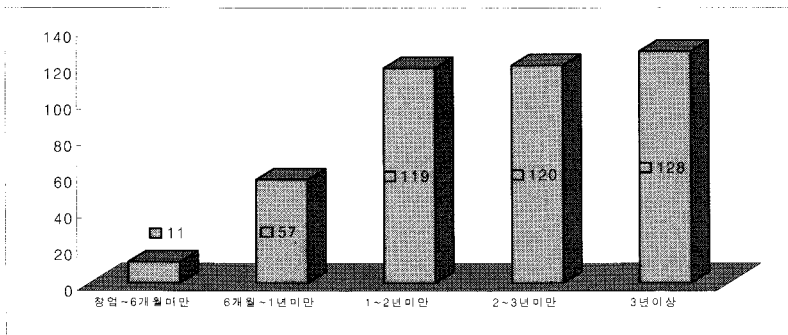
<그림 10> 창업교육 및 컨설팅분야

<그림 11> 창업교육 등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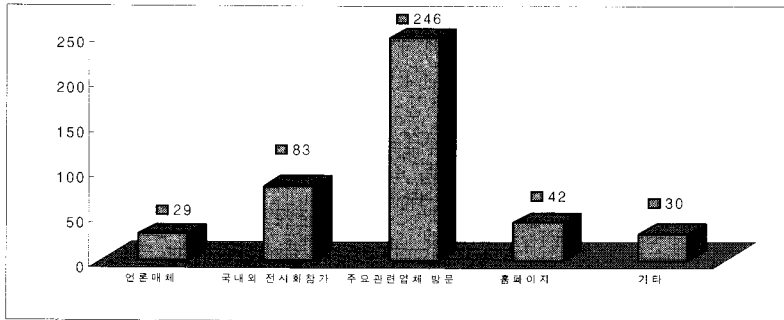
<그림 12> 바람직한 교육 장소

창업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6개월 미만인 2.5%, 6개월~1년 미만 13.1%, 1~2년 미만 27.4%, 2~3년 미만 27.6%, 그리고 3년 이상이 29.4%로 나타나 2년 이상 경영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기업이 57%로 정부의 창업지원은 최소한 창업 후 최소한 2년까지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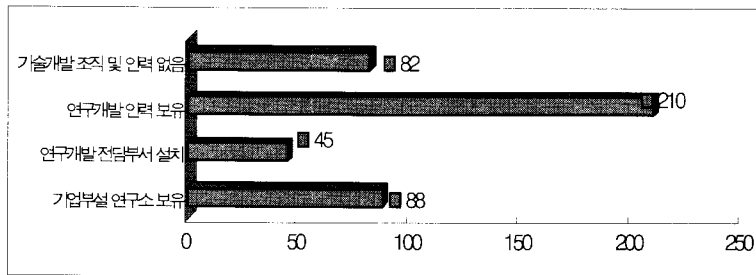
<그림 13> 창업 후 손익분기점 도달시기

주요 마케팅 방법은 언론매체 6.7%, 국내외 전시회 참가 19.3%, 주요관련 업체방문 57.2%, 홈페이지 9.8%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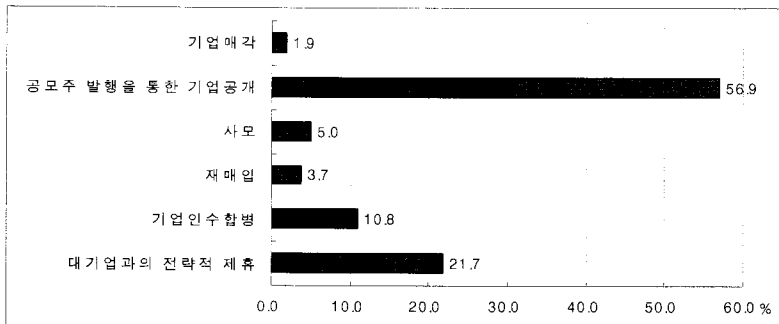
<그림 14> 창업기업의 주요 마케팅 방법

창업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조직은 연구개발 인력 보유형태로 49.4%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20.7%,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가 10.6%로 나타났고,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없는 경우도 19.3%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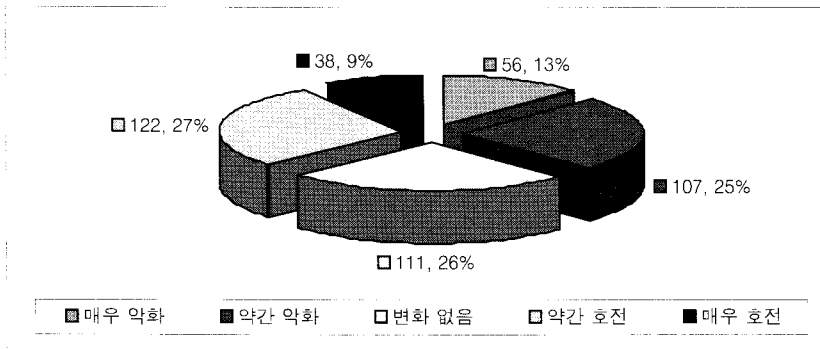
<그림 15> 보유 연구개발 조직

기술창업 후 5~6년 뒤에 투자 자금의 회수방법으로는 공모주 발행을 통한 기업공개(IPO)를 약 56.9%가,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21.7% 고려하고 있었으며, 특히 100억이상 매출기업의 경우 100%가 기업공개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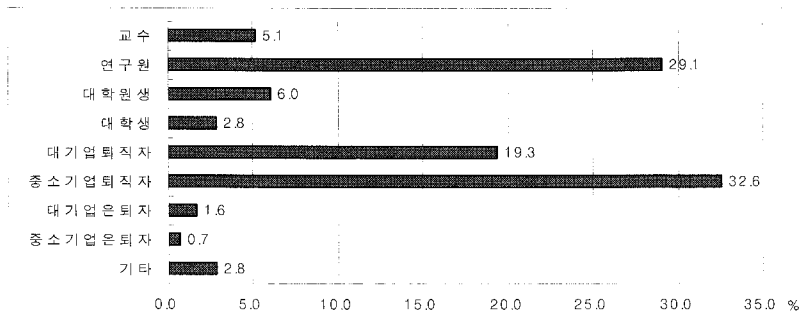
<그림 16> 투자자금 회수 방법

창업 시와 비교할 때 현재의 창업환경은 호전은 28.1%, 악화가 37.6%로 나타나 창업 후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17> 창업시와 비교할 때 창업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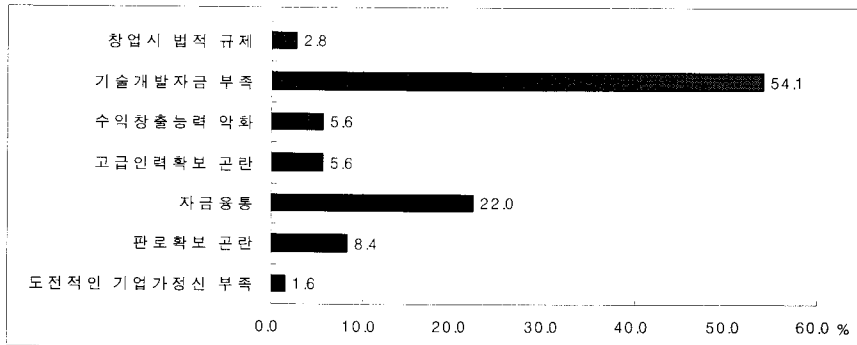
기 창업자가 생각하는 신기술 창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력은 중소기업퇴직자(5~10년 근무경력) 32.6%, 연구원 29.1%, 대기업퇴직자(5~10년 근무경력) 19.3%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창업에 적합한 인력

3.2 창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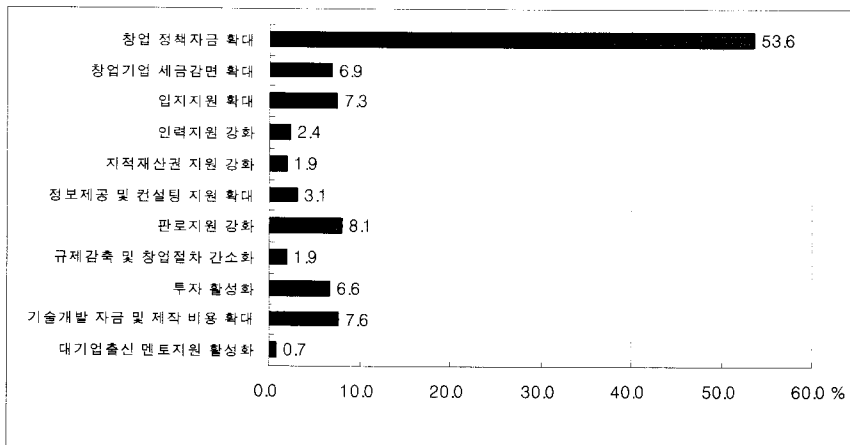
기창업자들이 판단하는 기술창업 시 장애요인은 기술개발자금부족(54.1%)과 시설·운영·기술개발·마케팅 자금용통의 어려움(22.0%)으로 인식하고 있어 76.1%가 각종 자금 확보 애로가 창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요소로 판단되었다(창업 시 법적 규제, 수익창출능력 악화, 고급인력확보 곤란, 판로확보(마케팅전략) 곤란, 도전적인 기업가정신 부족 등이 있음).



<그림 19> 기술창업 시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

정부의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기창업자의 만족도는 17.2%는 만족하지만 30.9%는 만족하지 못하여 자금지원제도의 보완이 요청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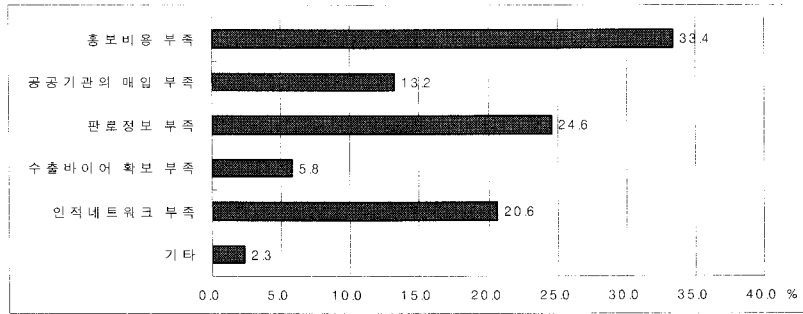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할 지원 분야는 53.6%가 창업 정책자금(융자, 보증 등) 확대를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20>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가 강화해야 할 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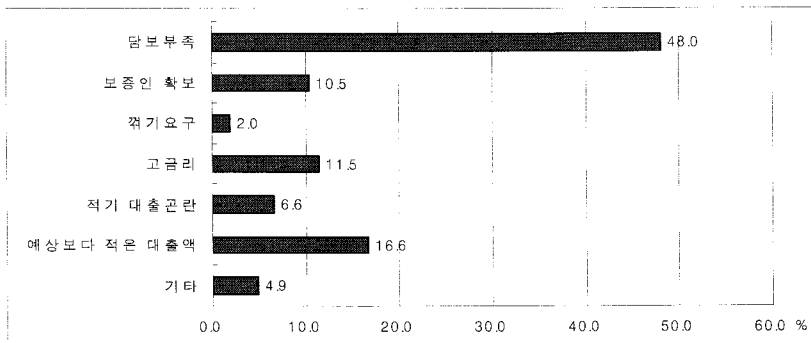
* 자금 : 중소기업창업자금, 여성기술인창업자금 등
 세제 :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등 세금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입지 : 창업보육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 등
 인력 : 교수등 휴·겸직제도, 병역특례연구요원 공급, 스톡옵션 제도
 기술 : 벤처기업 기술담보제도, 기술우대보증, '벤처사랑방·기술북덕방' 운영 등
 컨설팅 :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등
 판로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등
 법률 : 각종 사업 분야에 대한 인·허가, 신고절차 등

판로개척 시 주요 애로사항은 홍보비용 부족 33.4%, 판로 정보 부족 24.6%, 대기업 등 인적 네트워크 부족 20.6%, 공공기관의 매입 부족 13.2%, 수출 바이어 확보 부족 5.8%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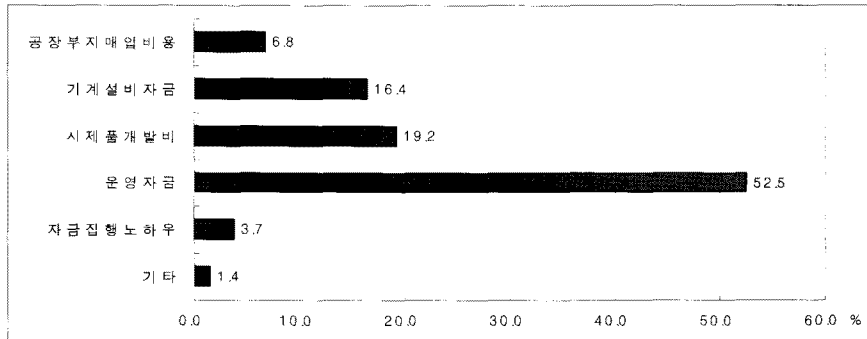
<그림 21> 판로개척 시 주요 애로사항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이용 시 48%가 담보부족, 16.6%가 필요보다 적은 대출액을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22>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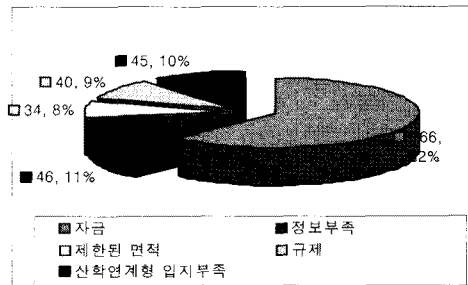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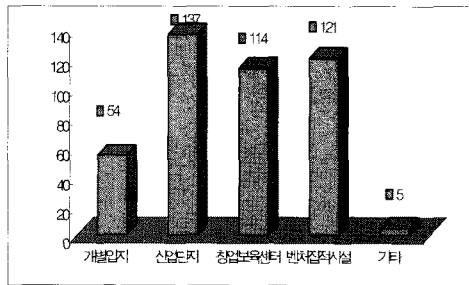
기술개발 후 겪었던 가장 큰 자금관련 애로사항은 운영자금이 52.5%, 시제품개발비 19.2%, 기계설비자금이 16.4%로 나타나 기업의 대소에 관계없이 운영자금이 기술개발 후에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 기술개발 후 자금관련 애로사항

세제감면 확대시 67.9%가 신기술기업 추가 조세감면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업의 매출액이 증대할수록 조세감면 요구도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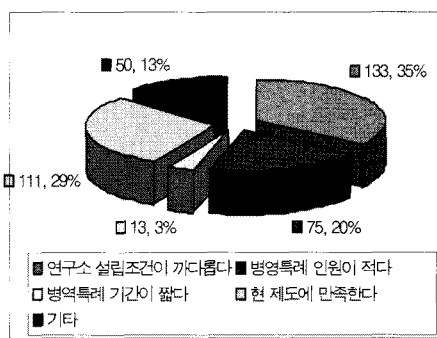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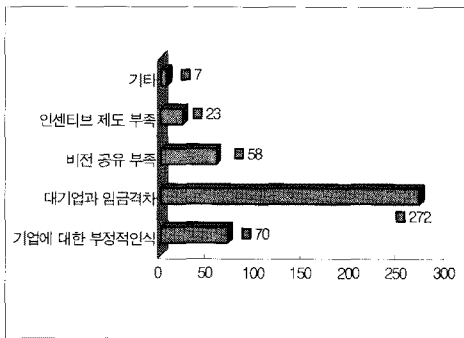
선호하는 입지는 산업단지(31.8%), 벤처집적시설(28.1%), 창업보육센터(26.5%)의 선호도는 비슷하나 매출액이 클수록 산업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 가장 선호하는 입지

<그림 25> 입지 선정 시 애로사항

매출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고급기술인력 확보에 있어 애로사항은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63.3%로 나타나 기술 인력의 대기업 편중현상은 심화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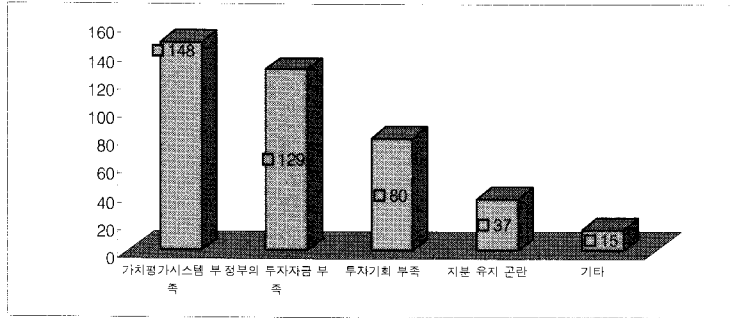


<그림 26> 고급기술인력 확보애로

<그림 27> 인력유치를 위한 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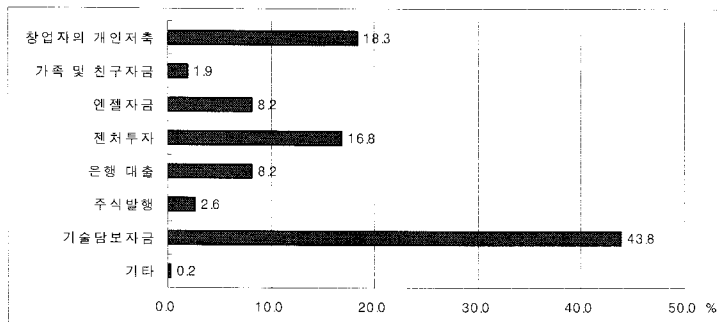
벤처투자 유치시 애로사항은 가치평가시스템 부족 36.2%, 정부 투자자금의 부족

31.5%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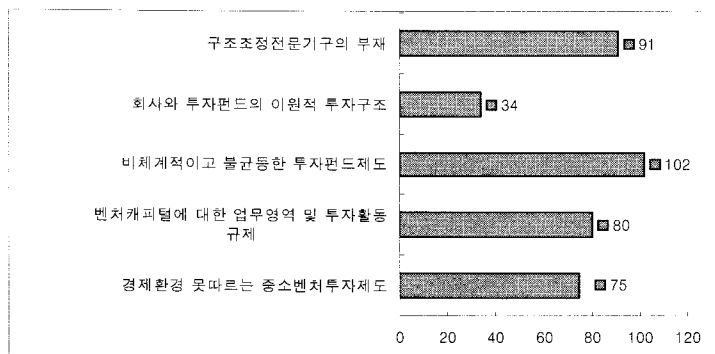
<그림 28> 벤처투자 유치 시 애로사항

신기술 창업 전용지원 자금 제도를 보완할 경우 43.8%가 '기술담보 대출'을 자금을 선호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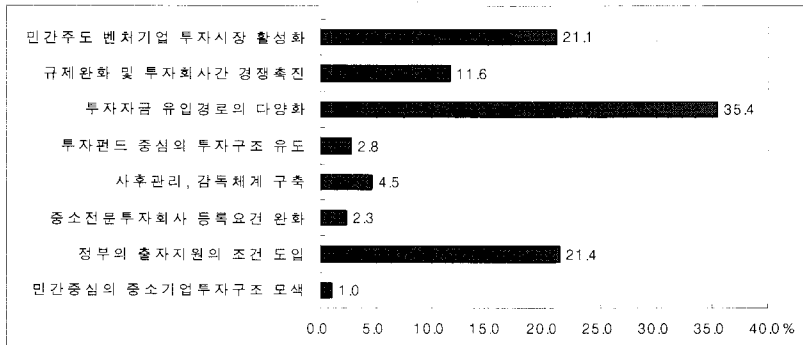
<그림 29> 신기술 창업 전용지원 자금 제도

중소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정책은 경제 환경을 따르지 못하는 중소벤처투자제도(59%)와 비체계적이고 불균등한 벤처캐피털 투자펀드제도(15.2%)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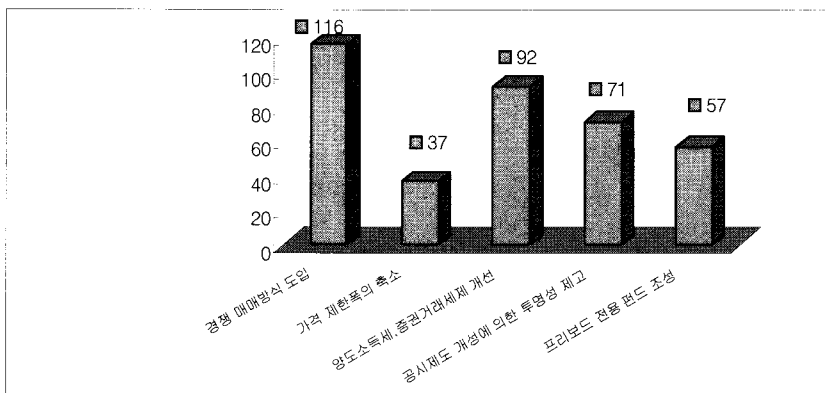
<그림 30> 기술창업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정부정책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투자자금 유입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자금 확충(35.4%)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원의 조건 도입(21.4%)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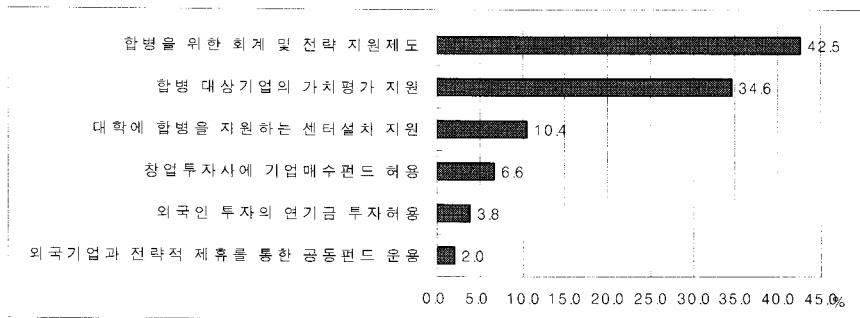
<그림 31> 중소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법

프리보드시장(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경쟁매매방식 도입(31.1%)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제 개선(24.7%) 및 공시제도 개선에 의한 투명성 제고(19.0%)를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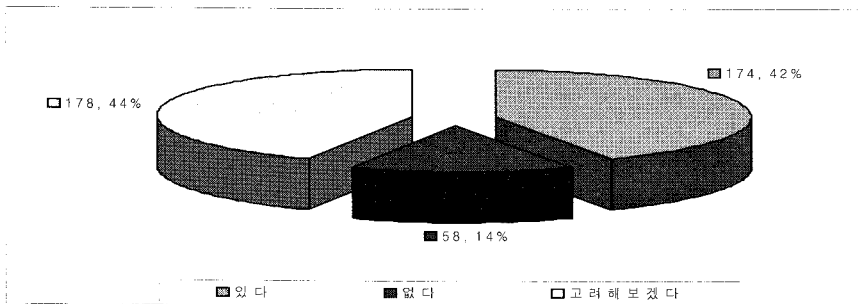
<그림 32> 프리보드시장(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

M&A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M&A를 위한 경영·회계 및 법률적 전략 지원 제도(42.5%)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M&A 대상 기업의 가치평가 지원(34.6%) 등을 정책적인 주요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33> M&A시장 활성화 방안

대기업 임원 출신의 멘토에 대하여는 창업자가 3년 동안 지원할 경우 활용 의사가 약 42%가 있었다.



<그림 34> 대기업 임원 출신의 멘토 활용의사

IV. 기술창업 실태조사 종합

4.1 인력

기술창업과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 기술창업에 있어서 기술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술창업기업이 안고 있는 높은 실패의 위험성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창업이후에 기업을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이 특히 기술창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러한 전문경영인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2 경영역량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창업화 하는데도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부분 창업실무에 대한 기초지식을 구비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제품화와 상용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된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창업기업으로서의 낮은 인지도로 시장에서의 기회조차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보다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과 홍보,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부족 등이 발견되었다.

4.3 금융

벤처버블 붕괴이후 투자자금과 관련 전문 인력이 급속히 시장을 이탈한 결과로, 본질적으로 창업단계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진 않는 기술창업 기업으로서는, 국내 전문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부족과 기존 금융기관이 행해온 용자위주의 보수적 자금집행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대체적인 회수시장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4.4 창업환경 및 인프라

200년대 초의 벤처붐이 냉각된 이후 창업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창업과 관련된 제반 지식과 역량을 갖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교육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초·중고 및 대학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사업 실패 시 위험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인색한 분위기였다.

창업보육센터의 소프트웨어 지원이 소홀하고 기술제품화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생산인프라가 부족한 형편이었다.

4.5 제도 및 행정절차

창업단계에서 각종 절차와 규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진입장벽이 됨은 물론, 기업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규제가 다소 복잡하고, 주식회사 요건 구비와 자본금 충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술의 창업화에 필요한 인허가 규제 또한 유무형의 비용초래하고 있는데, 제품 인허가기관의 전문평가능력 부재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V. 기술창업 현장참여인 면담내용 분석

5.1 교수·연구원 겸직제도 개선

현행 교수·연구원 겸직제도는 그 시행과정에 있어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였다. 기업에 주 1일만 출근하고, 해외출장도 년 14일로 제한되어 있어서 원활한 기업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전문화된 교수·연구원이 기술창업을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대학·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1차 2년간 겸직을 허락하고,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바, 관련 법규(벤처기업촉진법)와 교육공무원법, 대학연구소 규정에 겸직허용에 관한 간소화가 요구되었다.

5.2 창업보육센터(BI) 사업 개선

현행 BI 확장사업은 3,300㎡(1,000평)이상 BI는 신청 불가함으로 BI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신청자격에서의 면적조항을 삭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마치 3,300㎡으로 BI 규모를 한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BI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능력을 갖춘 매니저를 채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BI에 일정 경력을 갖춘 BI 전담교수를 배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자격은 BI매니저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석사 학위 혹은 박사 학위를 가진 자가 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VI. 결론 : 기술창업 실패이유 및 성공요인 분석

6.1 기술창업 실패이유

기술창업에 대한 실패원인은 기술에 대한 과신, 코스트 관리 부재, 영업·수익 확보를 위한 집중력 미흡, 무계획적인 도전, 전략판단의 미흡, CEO 부적임으로 능력부족

과 사유화하는 것으로 대별될 수 있었다.

<표 26> 창업실패이유(실패기업 7개사 인터뷰)

창업실패이유	세부 사유
기술에의 과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제품에 대한 과잉자신 - 상품·판매 전략의 오인 - 가격 전략의 실패 -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CEO - 경쟁, 특히 대기업의 움직임 경시
코스트 관리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이 없는데도 상당액의 지출 계속 - 자금조달 후 지출 급증, 수입과 착각 - 불요불급의 지출(호화로운 CEO실 등)
영업·수익 확보를 위한 집중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력의 경시, 안이한 영업태도 - 영업 목표의 미달 방지 - 매출채권 회수의 경시
되든 안되든 무계획적인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융자를 단번에 투자하고, 환경 변화로 자금용통을 하지 못하고 도산 - 단번에 판매장 확대로 공급할 제품공급 미달, 고비용으로 도산
전략판단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변화로 계획 단념 시기에도 집착 - 판매 전망이 없는 상품 고집 - 희망적 예측과 사실의 혼동
CEO 부적임(1) 능력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싫은 일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꿈과 이상만 좇음 - 비전이 없고, 리더십 부재 - 부하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재 - 우유부단, 의사결정 회피
CEO 부적임(2) 창업기업 사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리사욕 노골 - CEO의 급료가 극단적으로 높음 - CEO의 대부금, 빈번한 가수금

기술 창업시 실패요소로 인식되는 중요요인으로 기술과신은 자사 제품에 대한 과잉자신, 상품·판매 전략의 오인, 가격 전략의 실패,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CEO 및 경쟁·특히 대기업의 움직임 경시하는 것에 의한다고 분석되었다.

코스트 관리 부재현상은 매출이 없는데도 상당액의 지출을 계속하고, 자금조달 후 지출 급증하여 이를 수입과 착각하는 현상이 있고, 불요불급의 지출(호화로운 CEO실 등)하는 형태가 있었다.

기술창업을 통한 영업·수익 확보를 위한 집중심 미흡현상은 기술력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업력을 경시하거나, 안이한 영업태도로 영업 목표의 미달을 방치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일반적인 형태이겠지만 무계획적인 도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액융자를 단번에 투자하고, 환경변화로 자금용통을 하지 못하고 도산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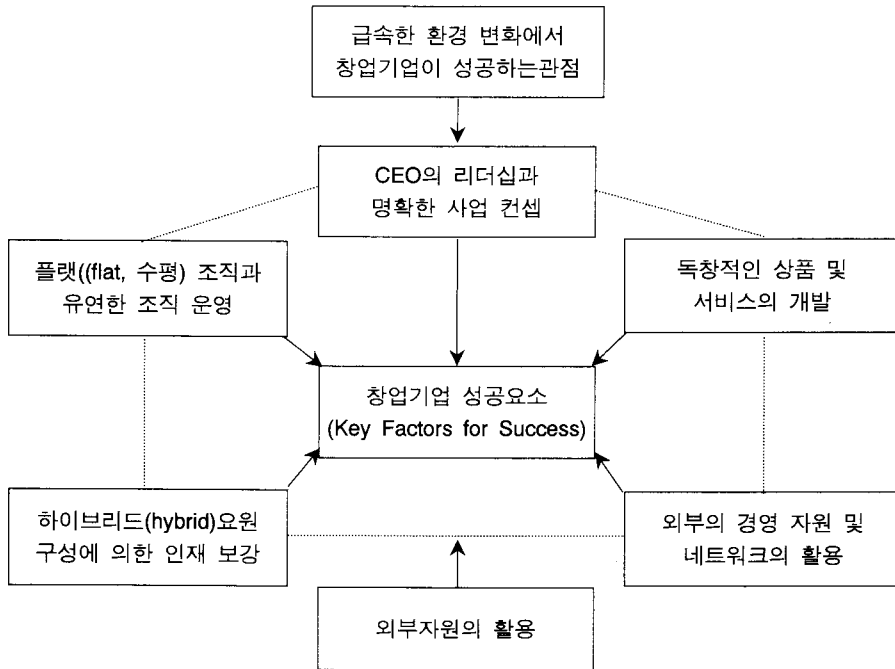
나 단번에 판매장 확대로 공급할 제품공급 미달, 고비용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많음에
서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6.2 기술창업의 공통된 성공요인(Key Factors for Success)

한편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파악된 성공요인으로 다음과 같았다.

- 1) CEO의 리더십과 명확한 사업 컨셉
 - CEO의 강한 리더십(Leadership)과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명확한 사업 컨셉(Concept) 존재.
 - CEO의 시대를 읽는 선견력과 경영 안내력,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명확한 사업 컨셉(Concept)이나 경영 비전(Vision)이 필요 불가결
- 2) 독창적인 상품·서비스의 개발
 - 성장성의 높은 시장에서 대기업에는 없는 독창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의 차별화 도모
- 3) 플랫(flat)한 조직과 유연한 조직 운영
 - 창업기업의 역할, 미션 및 권한 등을 명확하게 ‘조직학습’ (organization learning) 실시
 - 플랫한 조직과 유연한 조직 운영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
 - 사원 참가형의 개발 체제 가능
- 4) 외부의 경영 자원 및 네트워크의 활용
 - 인력, 재화, 자금, 정보 등 경영자원에 한계가 있는 창업기업은 외부의 경영 자원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경영 전개.
- 5) 하이브리드(hybrid)¹⁾ 요원 구성에 의한 인재 보강
 - 신입인재를 내부 육성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창업기업은 하이브리드 요원 구성에 의해 인재를 보강.
 - 관리직·경영 스태프 보강, 중도 채용의 적극적 전개
 - 하이브리드 요원 참여는 창업기업에 조직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신규 사업 개발이나 창조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가능

1) 올해 졸업자(신규) 채용을 중심으로 하는 토박이 인재와 중도 채용이나 인재 스카우트를 중심으로 하는 외부 조달 인재의 융합화 의미.



<그림 35> 면담조사로 도출된 창업기업의 성공 요인²⁾

2) 성공요인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서로 관련해 창업기업의 성공 요인이 되고 있음.

본 면담조사에서는 대상 창업기업의 성장 스테이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면담을 실시했음. 상품이나 사업에 라이프사이클이 존재하듯이, 기업도 라이프사이클이 존재하고 있어, 그 성장 스테이지마다 경영 과제나 성공 요인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

따라서, 향후의 연구과제로서는 기업의 성장 스테이지별로 면담조사를 실시해, 거기에 있어서의 성공 요인을 밝혀 가는 필요성이 있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음.

참 고 문 헌

- 김대호(2004),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방안", 『대한경영학회지』, 제44권, 6월, pp.1151-1176.
- 김미애·오인수(2003),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의 실태분석과 창업지원 개선안",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pp.152-165.
- 김진희·김대호·김홍(2008),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벤처창업연구』, 제3권, 제2호, pp.65-88.
- 김홍·장석주·하규수·윤병섭(2007), "BI 전문자격증 제도 개발 및 운영방안", 『벤처창업연구』, 제2권, 제2호, pp.121-155.
- 박우식·김대호(2007), "벤처기업의 수출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2권, 제1호, pp.15-36.
- 이윤재(2005),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가?",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pp.653-672.
- 이주현(2007), "한국 벤처캐피탈의 조직상황적 특성, 인적자원 특성 및 투자전략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2권, 제4호, pp.1-17.
- 정재영(2001), "이스라엘 벤처기업 창업 성공사례와 성공요인 조사분석", 『벤처경영연구』, 제4권, 제2호, pp.61-89.

A Survey on the Obstacles of Technology-based Startups

Kim, Dae Ho* · Kim, H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ailure factors and the success factors of technology-based startups(TBS). This study surveyed 327 startup companys on the general obstacles of starting business and the entrepreneurship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failure factors of TBS are 1) overconfidence of TBS in their technology, 2) lack of cost management, 3) lack of concentration on the sales revenue of their activies, 5) many unplanned challenges, and 5) lack of strategic decision. And the success factors of TBS are 1) CEO's leadership having a clear business concept, 2) development of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3) flat and flexible organization structure, 4) leveraging outside business resources and networks, and 5) strengthening the human resources by the hybrid agent.

Keywords: Technology-based Startups, The Obstacles, Success Factors, Failure factors

* Professor, Division of Service Management, Mokwon University.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Hoseo University.